

초강력 태풍 '힌남노' 한반도 초긴장

태풍 영향 반경 400km 넘어 경로 관계없이 피해 줄 듯 기상청 "경로 유동적...5~6일 광주·전남 '최대 고비'"

'초강력 태풍'으로 등급이 매겨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월요일인 5일부터 전남 남해안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영향 반경이 400km를 넘어지면서 태풍의 구체적 경로와 관계없이 광주·전남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유동적인 태풍 경로가 오는 4일께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최대 고비'는 5~6일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5일부터 전남 남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전역에 강풍과 비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힌남노는 1일 오후 3시 현재 타이완 동남동쪽 510km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2일부터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태풍의 구체적 경로가 유동적이지만, 일단 오는 5~6일을 고비로 보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태풍 바람이 가장 센 '폭풍 반경'에 전남권이 접어드는 6일 새벽이 최대 고비로 전망된다. 이 시기 남해안 지역에는 초속 5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보고 있다.

힌남노는 1일 현재 기준으로 중심기압 920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4m의 '초강력' 태풍이다. 다만 기상청은 힌남노가 한반도에 이르러 힘이 다소 약화해 최대풍속 초속 50m의 '매우 강'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보했다.

태풍은 풍속에 따라 중·강·매우 강·초강력 4개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중 최대풍속이 초속 54m를 넘

는 경우 '초강력'으로 분류된다. '매우 강'은 최대 풍속이 초속 44~54m인 태풍을 가리킨다.

강도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예상되는 피해는 여전히 크다. '매우 강' 수준의 태풍은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하며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가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직접 영향을 줄 땐 사망자만 117명을 낸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보다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이날 고흥군, 보성군, 여수시 등 남해안 10개 시군에 강풍 예비특보를, 남해서부앞바다와 먼바다 등에 풍랑예비특보를 발효했다. 태풍 간접 영향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는 3일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곳에 따라 50~10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 지역도 곳에 따라 10~60mm의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직 태풍의 변동성이 강해 정



확한 이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4일째부터 경로가 분명해질 것"이라며 "당분간 전남 남해안에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도 '힌남노' 비상체제

산사태 위험지·저수지 점검 등

전남도가 초강력 강도의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과 관련해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1일 오전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정환 정무부지사 주재로 실국 및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태풍 대비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취약지

선제적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석을 앞두고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배수로 정비, 지주시설 보강, 수산물 양식장과 가두리 시설의 안전조치 강화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해안가와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 예·경보시설, 배수시설, 위험지역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만날 것" "재판 발목 잡은 점 사과부터"

박진 외교장관 오늘 광주 방문...피해자 측, 의견서 철회 요구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광주를 방문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만날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가 "사과가 먼저"라며 즉각 반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피해자 면담은 존중하며 방해하지 않겠다. 하지만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 선고를 늦추고 피해 회복을 막아선 정부 행동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의 광주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박 장관은 12시쯤부터 이춘식(98) 할아버지와 양금덕(93) 할머니 자택을 차례로 방문하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둘러 고(故) 김혜옥 할머니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양금덕·김혜옥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끌려가 노역을 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다.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2018년 이들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중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쓰비시가 손해배상 명령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서 상표권 등 국내 자산의 강

제 매각을 위한 대법원 결정을 남겨둔 것이다. 선고가 임박해지자 우리 정부는 대일 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선고를 늦춰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 재판부에 냈고, 피해자 측은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의 광주 방문에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제징용의 고조를 겪으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기 위해 방문 일정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외교부는 전범기업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상 판결을 미뤄달라고 했다"며 "의견서 제출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대법원 의견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드러났다. 순천 출신 김성주(93) 할머니 관련 미쓰비시 자산 강제 매각 사건 심리 재판부 주심인 김재형 대법원장이 오는 4일 퇴임하는데 1일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모임은 "전범기업들이 4년 동안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데, 판결 이행을 법으로 강제하지 못한다면 사법부 판결이 무슨 소용이나"며 "대법원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이 사건을 조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벌초·추수 때 진드기·쥐 매개 감염병 주의

질병관리청 "쓰쓰가무시 등 코로나 증상과 비슷"

추석 명절 벌초나 추수가 농작업 등 가을철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나 설치류(쥐)가 옮기는 감염병에 주의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이 1일 당부했다.

진드기에게 물리면 쓰쓰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에 감염될 수 있다. 설치류 매개 감염병으로는 렙토스피라증 등이 있다.

쓰쓰가무시증은 오리엔티아 쓰쓰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렸을 때 걸린다.

대체로 진드기에게 물린 후 1~3주 이내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쓰쓰가무시증 환자의 80% 이상이 털진드기 유충 활동 시기인 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된다.

대체로 진드기에게 물린 후 4~15일 이내 고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 백신과 치료제는 없고 치명률이 약 20% 전후로 높아 예방이 중요하다.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설치류나 소·돼지 등 가축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 등에 사람의 상처 부위나 점막 등이 노출된 경우 감염된다. 5~14일 이내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청은 야외활동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 등을 알리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은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므로 의료진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을 의심하고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안내했다. /김형호 기자 khh@

대규모 생활체육 개최 가능 광주 '북구종합체육관' 개관

대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가능한 광주에서 두 번째로 큰 체육관이 북구에 문을 연다.

광주시 북구는 2일 오후 2시 북구 연제동에서 '북구종합체육관' 개관식을 열고 오는 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북구종합체육관'은 총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첨단 2 산업 체육공원(연면적 4995㎡)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10월부터는 정식 운영이 시작돼 주민들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1층에는 체력인증센터, 체육회사무실, 카페, 스포츠용품점, 샤워실 등이 들어섰다. 2층은 다목적 체육관이 자리 잡고 있다. 3~4층에는 관람석 671석과 주민 여가 프로그램실 등이 꾸며졌으며, 기존 야외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등 실내·외 종합 스포츠 시설로 조성됐다.

특히 체육관 면적이 2066㎡로 광주시에서 광주 여대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지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렬한 색채의 조화

1일 오전 광주시 동구 선교동 너릿재입구 공원에 핀 꽃무릇에 산제비나비가 날아와 향기를 맡고 있다. /니명주기자mjna@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